

#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미래와 발전방안

## 부품소재특별조치법 연장과 관련하여...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은 산업 간 연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수출과 내수 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 내수기반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개방경제에서 일국의 국제분업 위상과 이득은 국가 간 상대적인 관계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개방 경제의 시각에서 본 정부의 역할은 폐쇄경제의 시각에서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 또한 경기침체기에는 부품소재에 대한 민간의 R&D투자 역량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R&D투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이 모두가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이 연장돼야 할 이유다.

〈편집자 주〉



오영석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1997년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강의를 펼치고 있으며, 2004년에는 미국 워싱턴 대학 방문 교수를 지냈다. 현재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온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의 연장안이 지난 8월 국회 지경위를 통과했고, 법사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금년 말에 만료되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이후 10년 간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연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우리 경제는 그간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패턴으로 발전을 지속해 왔다. 우리 제조업 발전의 중심에는 부품소재산업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은 그간 기업들의 혁신과 투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토대로 발전해 왔다. 그 결과, 부품소재산업은 제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 수출확대를 주도해 왔다. 제조업 부가가치액에서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7.5%에서 2009년 62.2%로 높아졌다. 최근에는 주력 수출산업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 상품수출에서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에 49.1%에 달했다.

### 부품소재산업의 발전과 국제분업

국제분업의 활용은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을 가져온 원동력이었다. 특히 동아시아의 가공무역패턴은 우리나라 부

부품소재산업, 나아가 제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핵심 부품·소재를 수입, 이를 가공·조립한 재화를 세계 시장에 수출해 왔다. 우리나라의 대일 상품 수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에 약 72%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으로부터 부품소재를 수입, 이를 가공·조립한 최종재를 미국 등 선진국에 수출해 왔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대중 상품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에 약 70%에 달하고, 중국의 대미 상품 수출에서 최종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4.2%에 달했다.

이러한 국제분업은 우리나라 부품소재의 대중 수출 및 무역흑자를 확대시키는 한편, 대일 역조를 심화시켜 왔다.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은 대중국 수출호조에 힘입어 주력 수출산업으로 부상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부품소재의 수출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49.1%에 달한다. 무역수지 측면에서도 부품소재 분야는 2010년에 779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대중 흑자는 약 459억 달러로 부품소재 전체 흑자의 거의 60%를 차지한다. 반면에, 우리나라 부품소재의 대일 역조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0년에는 약 243억달러의 적자를 시현했다. 부품소재산업에서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셈이다.

그런데 필자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간재의 대일 무역적자는 2009년 현재 주로 기술경쟁력의 열위에 기반한 것이고, 대중 무역흑자는 기술경쟁력 우위 분야와 가격경쟁력 우위 분야가 고르게 기여한 것이었다. 이러한 국제분업의 양태는 각국의 산업발전단계를 반영하는 것이며, 각국이 선택한 결과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앞으로가 중요하다. 우리보다 기술이 앞서 있는 일본과 우리를 추격하는 중국은 최근 부품소재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은 '나노테크·부품·소재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고, 중국은 '10대 산업 진흥계획'에서 자국의 부품소재 사용을 촉진하는 'Buy China'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부품소재의 단기적 실적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술확보와 인재양성에 역점을 두고 일관성있

게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자국의 산업발전을 모색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국제분업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에 다름 아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일본과 중국의 미래 준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한·중·일 간 분업관계, 나아가 대세계 국제분업관계에서 점차 설자리가 좁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중요한 이유는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핵심 부품소재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국제분업의 이득을 극대화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융합기술, 녹색기술 등의 부상으로 인해 이를 활용한 부품소재의 기술혁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이러한 기술혁신은 완제품의 품질혁신을 가져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은 산업 간 연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수출과 내수 간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 내수기반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개방경제에서 일국의 국제분업 위상과 이득은 국가 간 상대적인 관계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개방경제의 시각에서 본 정부의 역할은 폐쇄경제의 시각에서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 또한, 경기침체기에는 부품소재에 대한 민간의 R&D 투자 역량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R&D투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이 연장돼야 할 이유다.

#### 국제분업 통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모색 기대

이제는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고,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전략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일본 등 선진국과의 관계에서의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국제분업 비전은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혁신을 토대로 비교열위의 정도를 완화하고, 산업내 분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대일 관계에서 비교열위의 정도를 완화하고 무역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소재의 기회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대중 관계에서는 향후 중국의 수입수요가 확대되면서 우리 부품소재의 대중 수출기회는 더욱 확대되는 한편, 중국의 발전은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중 간에는 향후 기술격차가 축소되고 산업구조가 유사해지면 부품소재 각 산업내에서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것이므로, 각 산업내 특화 분야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로드릭 하버드대 교수는 산업정책의 비전이란 자국이 어떤 산업 분야에 비교우위를 가지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민간과 공공부문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향후 중국 부품소재산업의 발전과 수입수요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의 산업내 특화 분야를 발굴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이 민간 간 전략적 협력하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부품소재산업의 특화 전략은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적 제품차별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품소재 영역에서는 기술경쟁력의 향상을 통한 수출재의 고부가가치화와 교역조건의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출재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교역조건(수출재 가격/수입재 가격)의 개선은 무역을 개시하는 본질적 이유이자, 분업이득의 국가간 분배에서 자국의 몫을 높인다. 교역조건의 개선은 우리 부품소재산업이 중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반면, 기술이 표준화되고 동질재를 생산하는 부품소재 분야에서는 가격경쟁력의 유지를 통한 수출확대 전략이 중요하다. 이는 대중국 전략에서 중단기적으로는 하이텍에 대한 특화와 미드텍에 대한 특화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상하는 중국시장에서 우리의 잠재 수요를 극대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제분업 비전은 대내적으로도 부품소재 산업의 발전을 통해 산업 간 연관계를 튼튼히 함으로써 수출과 내수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모색하는 길이기도 하다.

### 미래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

이러한 비전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 부품소재산업을 이끌어갈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기 민간의 기술개발투자 역량의 약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어 기업의 자금경색이 발생하는 경우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민간의 연구개발(R&D)투자가 우선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혁신은 부단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경기침체기일수록 민간의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연구개발 및 인프라에 대한 정부 주도의 공공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창의적인 기술인력의 육성과 기술혁신을 위한 제도기반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공계 인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과 그에 걸맞는 대우와 지원이 필요하다. 기술의 원천은 결국 인재라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다. 기술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개발과 수요창출을 연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경제 주체 간,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 간, 국내 부품소재기업과 해외 완제품기업 간 협력과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개별 기술 혹은 품목의 개발을 중심으로 한 단선적인 산업발전전략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종합적인 발전전략에 대한 중지도 모아야 한다. 예컨대, 특정 부품소재 기술 및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비교우위 상 보완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후방 연관 기술 및 분야와 연계된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